

Banks launch new biz to fight low interest margins

Korea Times

published: 2016-06-19

Banks rush to cut their interest rates on deposits, and launch real estate consulting services for rich customers, seeking to reduce costs and find out new revenue sources in the era of historically low interest rates, lenders said Friday

Citibank Korea announced earlier this week that the bank lowered its interest on deposits worth less than 10 million won for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to 0.01 percent from 0.1 percent. It means that a customer will be paid 900 won if he or she deposits 9 million won for one year.

Woori Bank and KEB Hana Bank have also reduced their interest rates on deposits by up to 25 basis points. Last month, KB Kookmin Bank hiked its handling fees on transactions and remittances.

The banks' move to cut rates and increase fees came after the Bank of Korea lowered its key interest rate last week to a record low 1.25 percent from 1.5 percent, citing slow economic growth and low private consumption. The central bank's decision to cut the benchmark rate, the first time in a year, surprised the market as its leaders showed few signs it would do so.

KEB Hana, the largest lender in the country by assets, reached out to real estate consulting services, as part of its efforts to replace revenues hit by low net interest margins. The services target rich customers who want to invest their assets in more profitable places.

"With the consulting service on properties, we expect that we can offer loans to customers through our branches close to them," said the lender in a statement.

KEB Hana wants to add value with the consulting services in real estate. It has offered tax and accounting services for rich customers.

Asset managers also seek to draw investors who are unsure where to allocate their money in an era of low interest rates. JPMorgan Asset Management promotes its Global Macro Opportunities Fund, which it claims can give an 11 percent return rate since Nov. 2012 while managing volatility, regardless of market environment.

"When they (market returns) are up, we make money. When they are down, we make money," said Robert Worthington, an executive director at the firm, in a luncheon meeting with reporters in Seoul earlier this week.

He said the fund follows market directions when their returns are up, but changes its strategy to more sophisticated ways when they are down. During volatile times, it invests in specific equities, bonds, currencies and derivatives, seeking to exploit the gaps in values.

Market observers advise consumers to invest their money in low-risk funds, rather than keeping the money in bank accounts that yield less than the inflation rate.

Many are pulling their money out of large commercial banks to put them i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avings banks or asset management firms, which offer higher yields. Deposits held at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came to 2,022.15 trillion won in April, up 111 trillion won, or 5.8 percent from December, the BOK said.

As interest rates are falling, so are the margins of lenders. According to data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local lenders' net interest margin (NIM) dropped to 1.55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from 1.63 percent a year earlier. NIM is a key indicator of a bank's profitability.

The NIM continued to tumble for the last few years, burdening performances of local banks. Korean banks' combined revenues from interests reached 8.5 trillion won in January-to-March period, down 100 billion won from the previous quarter.

By Kim Jae-won

[번역]

은행, 저금리 대책으로 새로운 서비스분야 진출

Korea Times

published: 2016-06-19

지난 금요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 최저수준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원천을 찾기 위하여 서둘러 예금이자율을 낮추고,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1,000 만원 이하 예금에 대하여 금주 초 예금이자율을 0.1%에서 0.01%로 낮춘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고객이 9 백만원을 1 년동안 예치하면 이자금액 900 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 또한 0.25% 포인트까지 예금이자율을 인하하였다. 지난달 국민은행은 은행 거래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인상하였다.

이자율을 낮추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러한 은행들의 움직임은, 지난 주 한국은행에서 경제저성장과 소비회복세 약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이러한 기준금리인하의 중앙은행 결정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국내 가장 큰 자산규모의 시중은행인 KEB 하나은행은 이러한 낮은 이자율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이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보다 수익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기 원하는 부유층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은 성명을 통하여 “이러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가까이에서 각 지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밝혔다.

KEB 하나은행은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KEB 하나은행은 이미 부유층 고객에게 세무 및 회계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들은 이러한 저금리시대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하여야 할 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JP 모건 자산운용사는 시장환경과는 무관하게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전망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2012 년 11 월부터 11%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마크로 펀드를 추천한다.

이 회사의 임원인 로버트 워싱턴은 금주 초 서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는 시장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시장수익률이 내려가도 우리는 수익을 창출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수익율이 올라가면, 시장의 방향을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시장수익율이 내려가게 되면 더욱 복잡한 방법으로 그 전략을 바꾸어 수익이 창출되도록 투자한다고 언급하였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기에도 가치 차이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특정 주식, 채권, 외환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시장관찰자들은 소비자에게 물가상승율보다도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시중은행 계좌에 돈을 묶어놓기보다는, 저위험 펀드에라도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이 지난 12 월보다 111 조원, 5.8% 증가하여, 4 월에는 2,022.16 조원에 다다랐다.

계속하여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금융권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1/4 분기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 1.63%에서 1.55%로 하락하였다. 순이자마진(NIM)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이다.

순이자마진(NIM)이 지난 수년동안 국내 은행의 실적에 많은 부담을 주며 계속하여 붕괴됨에 따라, 국내 은행 1 월-3 월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000 억원 하락하여 8.5 조원으로 집계된다.

김재원기자

===